

새 생명의 잉태로부터 탄생까지, 그의 주역인 여성의 건강을 노년기까지 지켜 주고 보살펴 주는 산부인과학은 최근 놀라울 정도로 발달하여 여성들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흔히 시험관아기기술이라 일컬어지는 체외수정술이 성공한 이후 여러가지 보조생식기법이 개발되어 전혀 아기를 가

한 최근 수술적 내시경수술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어 복부를 절개하지 않고도 종양 등을 제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부에 큰 흉터를 남기지 않을 뿐아니라 입원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환자치료가 점점 용이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 산부인과학의 의학수준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높아졌으며 어느 특정분야의 학문연구는 선진국을 능가하고 있는데 산부인과학 분야의 교육, 연구, 학술활동, 환자진료 등 제 역할에 구심점이 바로 대한산부인과학회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미 가족계획사업의 주역으로 폭발적인 인구 증가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자궁암 무료검진사업 등 여러가지 사회복지사업에 앞장서므로써, 이 나라 모자보건 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전국에 12개 지회두고 활동

〈연혁〉 조선의학협회가 재발족하던 1947년 5월10일 윤치왕, 김석환, 신응호, 설경성 박사 등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창립 발기인대회와 함께 첫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조선산부인과학회가 탄생되었다. 이듬해인 1948년 8월 15일 대한산부인과학회로 명칭을 바꾸고 회칙을 제정, 회장 중심제로 학회를 운영해 오다가 1974년 11월 이사장 중심제로 회칙을 개정, 1975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이사장 중심제로 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1958년 12월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 창간호가 발간되고, 1960년 5월 24~25일 전문의 고시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시험제도하에서의 새로운 전문의가 배출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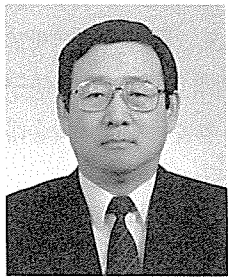
1947년 학회 발족 당시 4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되었던 학회 회원 수는 1996년

회원 4천여명 ... 내년 창립 50돌 학술대회 대한산부인과학회

1947년 서울대 병원에서 창립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회원 4천여명의 대규모 학술단체로 전국에 12개 지회와 대한불임학회 등 6개 자학회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77회에 걸쳐 학술회의를 개최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내년 학회창립 50주년을 맞아 대규모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질 수 없었던 여성들이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정자감소증의 남성 불임환자들도 자신들의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전학의 발달로 태아의 유전질환을 임신중에 검사함으로써 기형아나 유전적 질환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다.

정확대경시술과 초음파술 등 여러가지 첨단 진단 기술의 활용으로 부인암을 포함한 종양의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되었고 암치료를 위한 새로운 방법이 개발되어 부인암 환자에 희망을 주고 있다. 또



宋燦浩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현재 정회원 3천1백49명, 전공의로서 수련중인 준회원 9백67명 등 총 4천1백16명의 대학회로 발전하였다. 회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1950년대 말부터 본 학회 산하에 지회를 개설하기 시작하였는데 서울지회를 필두로 하여 현재 전국에 12개 지회가 상설되어 있고 각 지역마다 학술활동, 보수교육, 의료사안 해결 등 지회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의학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면서 학문의 세분화, 전문화가 필연적인 현상으로 변하고 있는데 산부인과학도 마찬가지로 교육, 연구, 진료면에서 특수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특수전문화의 물결을 타고 산부인과학회를 모(母)학회로 하는 대한불임학회, 대한주산의학회,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대한폐경학회, 대한태아의학회 등 자학회가 창설되어 활발한 학술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관련학회로는 대한미세수술학회, 대한유전의학회 등이 있다.

본 학회는 국내활동 뿐만 아니라 국제학술교류가 활발해지면서 1967년 12월 8일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산부인과연맹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1985년 9월 서독 베를린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산부인과연맹 주최 국제회의에서 9년 임기의 세계산부인과연맹 이사국으로 피선된 바 있다.

또한 세계산부인과연맹 회원국으로 가입함과 아울러 아세아·오세아니아 산부인과연맹에 가입, 주요 회원국으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학술활동〉 학회가 주관하는 국내 정규학술 활동중 규모가 가장 크고 권위를 인정받는 활동은 매년 시행하는 대

한산부인과 학술대회이다. 1947년 학회 창립과 함께 거행된 제1차 학술대회를 시발로 현재까지 77회에 걸쳐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왔는데 1966년까지는 연 1회씩 개최해 오다가 회원 수가 증가하고, 회원들의 학술연구 활동이 질적·양적으로 향상, 발전하여 1967년부터는 연 2회 즉 춘·추계로 나누어 개최하고 있다.

학술대회는 외국 유명학자 초청강연, 특강, 심포지엄, 연구논문의 구연 또는 포스터 발표, 전공의-전문의를 위한 연수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94년 최우수논문상도 제정

제1차 학술대회의 발표연제수는 15편이었는데 1995년 열린 제76차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2천여 회원 참석 하에 구연발표 연구논문수가 1백5편, 포스터발표 연구논문수가 36편, 초록연구보고가 1백25편이었고 외국초청연자 7명, 심포지엄 등 대단위 학술대회로 발전하였다. 이 학술대회가 회원들의 연구열의와 연구의 양적·질적 향상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특히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장려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학술상을 제정하여 매년 연구보고한 논문중 산부인과학 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논문을 엄정하게 선정, 학술상을 시상하여 왔고 1994년부터는 교수진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여 '최우수논문상'을 제정, 매년 추계학술대회에서 수상함과 아울러 발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학문연구 활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해지면서 1983년 개최되는 제9차 아세아-대양주 학술대회

국내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아세아-오세아니아 지역에서 거행되는 가장 권위있고 규모가 큰 학술대회인데 1983년 9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내학자 7백여명, 국외학자 7백여명 등 1천4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거행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명성을 국제적으로 날리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크게 인정받는 학회로 가일층 발전하였다.

1989년에는 제1차 한·일 합동 산부인과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한·일간의 학술적 교류 필요성을 느낀 대한산부인과학회와 일본산부인과학회가 1988년 한·일 합동 산부인과학회 개최에 합의하여 제1회는 한국에서, 제2회는 일본에서, 제3회부터는 격년제로 양국이 교대로 개최기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한일간의 합동학회를 통해 학문의 교류가 활발하여졌고 양국 회원들간의 친분을 돈독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92년에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산부인과내시경학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열린 국제학회로서는 최초의 세부전공(subspecialty)학회로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내시경 수술기법을 선보임으로써 새로운 최첨단 의료기술을 연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 밖에도 대한산부인과학회의 후원 하에 자학회 또는 각 교육연구기관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해외유학 연구가 활발해지고 1983년 아세아-대양주 산부인과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각종의 권위있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연구논문발표 열의가 뚜렷하

게 증가하여 1985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한 제11차 세계산부인과학술대회에서는 64명의 회원이 참석하고 20개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회원들이 국제학술대회의 좌장으로, 초청연자로, 연구논문 발표자로 참석하여 산부인과학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학회지 월간으로 4천부 발행

〈학회지 발간〉 산부인과학회는 창립된 이후 염원하던 학회잡지를 「대한산부인과학회잡지」의 명칭으로 1958년 창간하였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는 연 1회, 1961년은 연 3회, 1962년에는 연 5회 발간하였으며 1963년부터는 회원들의 연구활동이 방대해짐에 따라 월간으로 발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발간부수도 회원 수의 증가로 1962년에는 8백부였던 것이 1982년에는 2천부, 1990년에는 3천부, 현재는 4천부로 증가하였다. 본 학회지에는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고 내용은 연구논문 원저, 종설, 증례보고 등으로 순수한 학술연구잡지이며 원고의 게재여부와 그 순서는 편집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된다. 비록 회원의 연구라 할지라도 이미 타 학술잡지에 게재된 원고는 본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1996년부터는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9명의 분야별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1차로 논문심사를 마친후 편집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하는 이중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 학회잡지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산부인과학분야의 대표적인 학술 월간 잡지로 이 잡지를 통하여 수많은 우수논문들이 발표되었고, 회원

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1958년 배혜란씨의 연구논문 「Clinical Report on 5,000 Deliveries in Korea」가 국내 논문으로는 처음으로 외국 학술잡지 「Medical Journal of Australia」에 게재된 이후 1989년까지 약 80여편의 연구논문이 각종 권위있는 외국 학술잡지에 게재되었고 1990년 이후에는 더 많은 회원들의 우수논문들이 외국잡지를 통하여 발표되고 있다.

〈인재양성과 평생교육〉 의과대학 학생들에게는 1차 진료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의사들에게는 전공의 기간중의 효과적인 교육훈련, 엄격한 고시관리를 통하여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의가 되도록 노력하며 전문의들에게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첨단의학대열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반 교육훈련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한 학회사업이다.

학회는 의과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제정하여 배워야 할 의학의 뚜렷한 방향과 정도를 제시하여 주고 있으며 1987년 전국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진 1백명 이상이 참여하여 「산과학」「부인과학」 교과서를 처음 발간하여 학생, 전공의, 전문의의 지침서로 활용하기 시작한 이후 1991년 개정판을 출간한 바 있다.

전공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전문의가 되는데 필수적인 지침서를 마련, 활용하고 있으며 매년 전문교수들이 교육훈련병원을 직접 방문, 전공의 교육훈련을 엄격히 조사하여 평가 및 개선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4년의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의사들을 대상

으로 엄격한 자격심사와 함께 필답고사, 구술시험, 실기시험이 포함된 전문의 고시를 통하여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교육훈련, 학술연구활동, 학회지 발간, 전문의 고시업무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교육, 연구, 진료 관리 및 경영, 친목에 관련된 제반사업에 관여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 의학회의 소속학회로 우리나라 의학 발전과 국가의 모자보건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보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내년 창립50주년기념 학술대회

〈추진중의 사업〉 다가오는 1997년은 학회창립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역경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 온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반세기를 맞는 창립 50주년을 기점으로 가일층 발전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일합동학술대회는 물론 50주년기념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교육훈련의 재 도약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침, 전공의를 위한 교육훈련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산과학」, 「부인과학」 교과서의 개정작업중이다. 또한 학회의 학문적인 업적을 용이하게 참고하고 연구 보존할 수 있도록 CD롬 타이틀 제작을 계획하는 등 학회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올 11월 대한부인중앙·콜포스코피학회 주관으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8차 용모성질환 세계대회와 1998년 대한주산의학회가 유치하여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시아-대양주 주산의학회 학술대회를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후원하고 있다. 57